

2022년 미래문화자산 선정 결과

□ 사업 목적

: 현재 서귀포시(행정시 혹은 마을) 단위의 공식적인 미래문화자산은 아니지만 시민 스스로 제안, 발굴을 통해 사라져가는 일상의 노지문화 보존, 재상, 활용을 위한 문화 캠페인으로 서귀포 미래문화자산화를 위한 홍보 및 아카이빙에 목적을 둔다.

□ 선정 과정

: 2022년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시민 제안을 통해 16건 34개의 노지문화자원 접수. 각 전문가로 구성된 서귀포 미래문화자산 추진단의 분류, 검토, 심의, 현장조사(시민발굴단 합동) 등 과정을 통해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 6건 24개 선정

제안 자산명	제안자	위치	주요내용
(1) 의귀리 창세미소	의귀리 이장 양OO	의귀리 874 동쪽	과거 식수로 사용, 의귀리, 수망리, 신흥리에서 물을 길러 왔던 장소
(2) 의귀리 생이물	의귀리 이장 양OO	의귀리 901 동쪽	말이나 소에 물을 먹이던 장소, 공중목욕탕으로도 활용
(4) 고래선원 조난 추모비	서귀포신문 설OO	서귀포충 패류화석산지	1933년 조난당한 일본의 동양포경 주식회사 포경선 선원들(제주출신 선원도 승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6) 4-H 표지석 19기	서귀포시 4-H본부 회장 고OO	대정읍 1기, 남원읍 2기, 성산읍 9기, 안덕면 2기, 표선면 1기, 중문동 1기(대포 1), 예래동 2기(예래 1, 색달 1), 대륜동 1기(호근 1기)	4-H운동을 상징했던 농업단체문화유산
(7)수도기념비	서호동 마을회장	서호동 서호로 27주변	1927년 7월 7일에 준공 / 서호마을 안에서의 수도물 공급으로 삶의 여유와 질을 높이는데 일조, 전도 첫 수도시설의 옛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수도기념비 건립
(11)상천분교	상천리 마을회 이장 최OO	서귀포시 병악로21	4.3 와중이던 1948년 마을이 불태워진 이후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를 만들었음

□ 향후 계획

: 2022년 최종 선정된 미래문화자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대상 스토리화 및 소유주(제안자 등)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콘텐츠화 될 수 있음.